

“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

(요한복음 15장 5-9절)

2021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2021년 1월 18일-25일

기도자료집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2021년 1월 18-25일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요한복음 15:5-9)

세계교회협의회 신앙직제위원회 ·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목차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 6
주제 성구 · 8
주제 소개 · 10
2021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자료 준비 · 16
일치 기도 예식
예식 소개 · 18
예식 순서 · 20
추가 자료(악보) · 30
8일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
제1일 하나님의 부르심 · 34
제2일 내적 성숙 · 36
제3일 한 몸을 이루기 · 38
제4일 함께 기도하기 · 40
제5일 말씀으로 변화되기 · 42
제6일 다른 이들을 환대하기 · 44
제7일 일치 안에서 성장하기 · 46
제8일 모든 피조물과 화해하기 · 48
그랑샹 공동체와 수도 생활에 대한 교회 일치 체험 · 50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주제 목록(1968-2021년) · 56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역사에서 중요한 날들 · 61
6기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64

*일러두기: 성경은 「공동번역 개정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연중 일치 추구

전통적으로 북반구에서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으로 정해진 기간은 1월 18-25일이다. 이 주간은 1908년에 폴 왓슨(Paul Wattson)의 제안에 따라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과 성 바울 사도의 회심 축일 사이의 기간으로 정해졌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1월이 휴가철인 남반구의 교회들은 흔히 다른 날들을, 예컨대 교회 일치를 상징하는 날인 성령 강림 대축일 무렵(1926년에 '신앙과 직제 운동'이 제안한 기간)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으로 지내기도 한다.

이 기간은 신축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여기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연중 어느 때이든, 여러 교회가 이미 맺고 있는 친교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뜻인 완전한 일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란다.

자료의 수정

이 자료는 지역 차원의 용도에 맞추어서 언제든지 수정해도 좋다는 양해 아래 제공된다. 수정할 때는 그 지역의 전례나 신심 관행, 전반적인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몇몇 지역에서는 자료 수정을 위한 교회 일치 기구들이 이미 조직되어 있다. 우리는 다른 지역에서도 수정 작업을 위하여 그러한 기구들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자료의 사용

- 공통된 하나의 예식으로 함께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지내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을 위하여 일치 기도 예식서를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교회들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 각자의 고유한 예식에 기도 주간의 자료를 끼워 넣어 사용할 수 있다. 일치 기도 예식서의 기도들이나 '8일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 또는 이 자료에 첨가된 기도 가운데 일부를 각자의 환경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지내는 공동체들은 그 주간에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 '8일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 내용들을 그 예식에 도입할 수 있다.
- 또한 이 기도 주간의 주제에 관하여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들은 '8일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에 제시된 성경 구절들과 묵상 자료를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날마다 별이는 토론은 청원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다.
-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자료가 그들의 기도 지향을 하나로 모으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교 교회의 더욱 명백한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과 친교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길 수 있다.

주제 성구

요한복음 15:1-17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조리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잘 가꾸신다. 너희는 내 교훈을 받아 이미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다.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난 사람은 잘려 나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또 내 말을 간직해 둔다면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 왔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벗이 된다.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주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주제 소개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요 15:5-9 참조)

2021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자료는 그랑샹 수도 공동체(Communauté monastique de Grandchamp)¹⁾가 준비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17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선정된 이 주제 성구는 그랑샹 공동체의 성소를 표현한 것으로, 교회와 인류 가족의 기도, 화해, 일치를 뜻한다.

1930년대, ‘모르주 부인회’(Dames de Morges)라는 단체에 속한 프랑스어권 스위스 출신의 개혁파 여성들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중요성을 재발견하였다. 그들은 또한 영성 피정의 관습을 되살려, 외딴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며 자신의 신앙생활을 키워나가고자 하였다. 다른 사람들도 이내 이들에게 동참하여 뇌샤텔 호숫가 근처 작은 마을인 그랑샹에서는 정기 피정이 마련되었다. 지속적인 기도와 함께, 늘어나는 방문객과 피정객을 환영해야 할 필요가 생겨났다.

현재 공동체는 다양한 연령, 교회 전통, 국가와 대륙 출신의 자매들 50명으

1) 자료집 끝부분에 있는 공동체 소개와 공동체 홈페이지 www.grandchamp.org 참조.

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자매들은 다양성 안의 친교를 드러내는 생생한 모범이 된다. 이들은 충실한 기도 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이어가는 가운데 방문객을 환대한다. 이 자매들은 자기 수도 생활의 은총을 피정, 침묵, 치유를 위하여 또는 의미를 찾으러 그랑샹에 오는 방문객과 자원봉사자들과도 함께 나누고 있다.

초창기 자매들은 그리스도교 교회 분열이라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이끈 선구자 폴 쿠티리에(Paul Couturier) 신부와의 우정으로 힘을 얻었다. 공동체는 맨 처음부터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한 기도를 공동체 생활의 핵심으로 삼은 것이다. 그랑샹을 지탱하는 세 기둥, 곧 기도, 공동체 생활, 환대의 원칙에 충실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임무가 이 자료집의 토대가 된다.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름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뜻한다

남녀 수도자를 뜻하는 프랑스어 므완느(moine), 모니알(moniale)은 그리스어 ‘모노스’(μόνος)에서 유래한다. 이는 홀로, 하나라는 뜻이다. 그런데 종종 우리 마음과 몸과 정신은 하나 되기는커녕 여러 갈래로 분산되곤 한다. 남녀 수도자들은 하나의 자아를, 그리고 그리스도와 일치하기를 열망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요 15:4ㄱ). 온전한 삶을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은, 자기 수용의 여정, 개인의 역사 그리고 조상의 역사와 이루는 화해의 여정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 15:9).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무르셨고(요 15:10 참조), 그분의 바람은 오직 이 사랑을 우리와 나누는 것이었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요 15:15ㄴ).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분께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화하여 길러 주는 포도밭 농부가 되어 주신다. 이것이 기도 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비유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중심이시며 우리 삶에 초점을 맞추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이 손질해 주시

고 온전하게 해 주신다. 온전한 인간 존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바친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는 내적 자세이며, 자라날 공간을 요구한다. 생필품을 구하느라 여력이 없을 수도, 삶의 도전 과제나 활동, 잡음이나 분심거리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1938년 유럽이 혼란에 휩싸였을 때에, 훗날 마더 즈느비에브가 될 즈느비에브 미슐리(Geneviève Micheli)는 공동체의 첫 번째 원장으로서 오늘날도 여전히 중요한 다음 기록을 남겼다.

“우리는 휘황찬란하지만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을 지켜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인간의 빠르고 완벽한 성취들이 그 존재를 사라지게 만드는 듯한 위험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생각하는 존재를 불가능하게 하는 시끄럽고 빠른 이 집단 광기 안에서 우리 문명은 없어지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성 생활의 충만한 가치를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사실을 깨달아 서로 하나 되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또한 평화의 군대와 평온한 쉼터와 생명의 중심을 이루어, 사람들이 침묵 안에 하나님 창조의 말씀을 찾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과 죽음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름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요 15:8). 우리는 자력으로 열매 맺을 수 없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수액 곧 예수님 생명이 흘러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열매 맺는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무를 때, 포도나무 가지로 머무를 때 그분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온다.

우리가 예수님께 귀 기울일 때에 그분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어, 당신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신다(요 15:7 참조). 그러면 우리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분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공동체로서, 교회 전체로

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자 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 계명을 지키려는 것이다(요 15:12 참조).

모든 사랑의 샘이신 그리스도 안에 머무름으로 친교의 열매가 자라난다

그리스도와 맺는 친교는 다른 이들과 맺는 친교를 필요로 한다. 6세기 팔레스타인의 수도자인 가자의 도로테우스(Dorotheus of Gaza)는 이렇게 표현하였다.

“땅에 그려진 원, 곧 콤파스를 중심에 대고 동그랗게 그린 선을 떠올려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원은 세상이요, 그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 지름들은 서로 다른 인간 삶의 경로요 길입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기를 바라며 원의 중앙을 향하여 걸어 나가는 성인들은 원 안으로 들어가 서로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밖을 향해 나간다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그러하기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서로 멀어지고, 서로서로 멀어질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은 명백해집니다.”

우리와는 너무도 다른 타인에게 다가가는 것, 타인과 공동체를 이루어 산다는 것은 하나의 도전이 되곤 한다. 그랑상의 자매들은 이러한 도전을 잘 알고 있기에, 떼제(Taizé) 공동체의 로제(Roger) 수사²⁾의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소중히 여긴다. “정화하는 고통 없이는 우정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이웃 사랑도 없습니다. 헤아릴 길 없는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해 주는 것은 십자가뿐입니다.”³⁾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분열, 곧 서로 멀어진다는 것은 일종의 수치이다.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2) 그랑상 공동체와 프랑스의 떼제 수사들은 무엇보다 그들의 역사적 기원이라는 측면에서 결속되어 있고, 그랑상의 자매들의 규칙서가 각주 3에 언급된 책을 기초로 한다는 측면에서도 결속되어 있다.

3) Frère Roger de Taizé, *Les écrits fondateurs. Dieu nous veut heureux*, Taizé, Les Ateliers et Presses de Taizé, 2011, 95면.

러한 상황에 슬퍼하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일치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린다. 일치를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는 우리에게, 그분께 되돌아와 우리가 지닌 풍성한 다양성에 기뻐하면서 서로 더욱 가까워지라는 초대이다.

공동체 생활에서 배우듯이, 화해를 위한 노력은 많은 대가와 희생을 요구한다. 당신께서 아버지와 한 분이시듯 우리도 하나 되기를 바라신, 그리하여 세상이 믿게 되기를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의 보루이다(요 17:21 참조).

그리스도 안에 머무름으로써 연대와 증언의 열매가 자라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이들이지만, 해방되기를 기다리며 진통을 겪는 피조물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도 하다(롬 8장 참조).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통과 분쟁의 악들을 목격한다. 또한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흐르게 한다. 우리가 우리 자매형제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세상에 희망을 자라나게 할 때에 우리 안에서 파스카 신비가 열매를 맺는다.

영성과 연대는 불가분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서 우리는 힘과 지혜를 얻는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피조물과 존중과 친교의 관계를 이루면서, 불의와 억압의 구조에 대항하고 우리가 온 인류 안에서 자매형제임을 온전히 인식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할 수 있다.

그랑상 자매들이 매일 아침 함께 낭독하는 생활 수칙 요약문은⁴⁾ “하나님 나라가 오시도록 기도하고 일합시다.”라고 시작한다. 기도와 일상생활은 서로 동떨어진 두 실재가 아니라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4) 교회 일치 기도 주간 전례를 거행하는 동안 이 생활 수칙을 함께 낭독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이 문서 28-29쪽에 제시되어 있다.

2021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8일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 예식을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도의 여정을 제안한다.

제1일 하나님의 부르심: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요 15:16ㄱ)

제2일 내적 성숙: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요 15:4ㄱ)

제3일 한 몸을 이루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 15:12ㄴ)

제4일 함께 기도하기: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요 15:15)

제5일 말씀으로 변화되기: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요 15:3)

제6일 다른 이를 환대하기: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요 15:16ㄴ)

제7일 일치 안에서 성장하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요 15:5ㄱ)

제8일 모든 피조물과 화해하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요 15:11)

2021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자료 준비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 신앙직제위원회의 공동 후원으로 조직된 국제준비위원회는 스위스의 뇌샤텔 주에 위치한 아루즈, 그랑샹에서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2021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자료집 준비 모임을 가졌다. 모임에 앞서, 세계교회협의회 요청으로 그랑샹 공동체가 주제를 정하고 초안을 마련하였다. 국제준비위원회는 그랑샹 공동체 전체가 몇 개월에 걸쳐 기울인 노력으로 마련한 이 초안을 자료집 작성의 기초로 삼았다. 9월 모임에는 국제준비위원회와 함께 네 명의 그랑샹 자매들도 참석하였다. 모임은 일치평의회 앤소니 커러(Anthony Currer) 신부와 세계교회협의회 신앙직제위원회 위원장인 오다이르 페드로소 마테우스(Odair Pedroso Mateus) 목사가 공동으로 주재하였다.

그랑샹 공동체는 여러 교회와 나라 출신의 자매들이 모여 만든 수도 공동체이다. 공동체는 20세기 전반기에 설립되었고, 그 태동부터 떼제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인물인 폴 쿠티리에 신부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 현재 공동체는 모든 피조물을 존중하는 가운데 인류 가족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화해의 길을 모색하려 헌신하는 자매들 50여 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안 준비 지역 모임이 선정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요 15:5-9 참조). 이 주제를 통하여 그랑샹 자매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면서 관상의 삶으로 얻은 경험과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다. 또한 기도의 열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자

매형제들과 이루는 친교, 모든 피조물과 이루는 연대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었다.

국제준비위원회 위원

- Ms. Anne-Noëlle Clémen - 그리스도인 일치 단체(Unité Chrétienne)
- Revd. Peter Colwell - 영국과 아일랜드의 함께하는 교회들 부사무총장
- Revd. Anthony Currer -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
- Dr. Ani Ghazaryan Drissi - 세계교회협의회 신앙직제위원회 사무국 프로그램 총괄
- Ms. Virag Kinga Mezei - 세계교회협의회
- Dr. Hanne Lamparter - 독일 루터교회
- Sr. Leticia Candelario Lopez - 하나님 말씀 선교 형제회(싱가포르)
- Revd. Dr Odair Pedroso Mateus - 신앙과직제위원회 위원장
- Revd. Father James Puglisi - 속죄회 일치 센터
- Revd. Dr Mikie Roberts - 세계교회협의회 영성 생활 프로그램 총괄
- Dr. Clare Watkins - 로햄턴 대학교

그랑상 공동체 참석자

- Sr. Anne-Emmanuelle Guy
- Sr. Gesine Rohrbach
- Sr. Embla Vegerfors
- Sr. Svenja Wichmann

사무지원 Mr. Alexander Freeman, 세계교회협의회

예식 소개

이 예식은 그랑샹 자매들의 기도 방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 기도 전통 안에는 - 베네딕토 수도회 전통에서 때로는 ‘밤샘’ 기도라고 부르는 - 세 가지 수도자 기도 형태가 하나의 저녁 기도로 합쳐져 있다.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예식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 부분으로 된 밤샘 기도들로 구성되며, 그랑샹 공동체가 이용하는 양식을 따른다.

각 밤샘 기도는 성경 독서, 화답송, 침묵, 중보 기도로 이어지는 동일한 양식을 따른다. 또한 아래에 제시된 각 밤샘 기도 주제에 상응하는 행동을 포함한다. 모든 밤샘 기도의 마침 노래는 그랑샹 공동체 회원이 작곡한 “하나님의 빛”(Lumière de Dieu)이다.

제1 밤샘 기도는 개인의 내적 일치와 그리스도 안에 머무름에 초점을 맞춘다. 참석자는 5분 동안 침묵해야 한다. 예식 전체에서 침묵의 순간들이 여러 차례 있다.

제2 밤샘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시적 일치를 재발견하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내린 우리는 이웃을 향해 그리스도의 평화의 인사를 서로 나눈다.

제3 밤샘 기도는 모든 민족과 모든 피조물의 일치를 향한 열린 자세를 갖게 해 준다. 밤샘 기도 때의 행동은 가자의 도로테우스의 글에서 영감을 받았다(‘주제 소개’ 참조). 몇몇 사람이 원을 둘러싸고 자리했다가 중앙을 향해 나아간다. 우리가 하나님, 곧 중앙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서로 더욱 가까워지게 된다.

공간의 여유가 있다면, 그리고 참여하는 이들의 전통에 따라, 이 행동은 다양한 안무로 표현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안내를 따라도 좋다.

- 회중은 불을 붙이지 않은 초를 들고 있어야 한다.
- 주관자는 이 행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회중이 방사형으로 ‘동그랗게’ 모일 수 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 (예를 들어, 여러 전통에서 사용하는 부활초처럼) 불을 땀긴 커다란 초를 원 중앙에 놓는다.
- 다양한 그리스도교 전통을 지닌 6-8명의 사람들이 초를 둘러싸고 원을 이룬다. 원은 바닥에 그려도 좋고 동그랗게 모여 앉은 회중으로 표현해도 좋다.
- 초를 둘러싸고 원을 이룬 이들 각자는 불을 붙이지 않은 작은 초를 모든 사람에게 보이도록 높이 들고 나아간다.
- 독서를 읽는 동안 행동이 따르고(27-28쪽 참조), 원을 이루던 사람들은 모두 같은 보폭으로 중앙을 향하여 나아간다.
- 중앙에 도착하여 자기 초에 불을 땀기면 다시 회중에게로 돌아온다. 그런 다음에 모든 이가 촛불을 켜다.
- 회중의 촛불에 불을 붙이는 동안 “하나님의 빛”을 노래한다.
- 예식이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은 불을 붙인 자기 초를 계속 들고 있다. 장소에 따라 가능하다면 회중은 불 켜진 초를 들고 예배 장소 밖으로 나가 더 큰 세상으로 행렬할 수 있다.

시작 때의 호칭 기도는 낭독하거나, 가능하다면 두 명이 함께 합송으로 바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편도 합송으로 바치거나 아니면 밤샘 기도의 주제와 연관된 다른 성가로 대체할 수 있다. 중보기도 때의 화답송은 낭송하거나 합송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중보기도 시간을 늘려 자유 기도를 덧붙일 수도 있다. 그랑샹에서 사용하는 호칭 기도의 배경 음악, 화답송, 중보 기도는 30-33쪽에 제시되어 있다.

성가는 그랑샹 공동체의 홈페이지에서(www.grandchamp.org) 들을 수 있다. 그랑샹의 공동 기도는 날마다 온라인으로도 제공된다.

(www.grandchamp.org/prier-avec-nous)

예식 순서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요 15:5-9 참조)

- + 인도자
- ◎ 회중
- 말은이

기도로 초대

시작 성가 (지역에 맞게 선택)

성령 청원 성가

환영 인사

-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 ◎ 또한 목사님의 영광 함께.

○1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스위스의 그랑상 공동체 자매들이 선정한 올해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2 이는 당신께로 와서 당신 안에 머무르라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일치되어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열매를 맺고 모든 이에게 생명을 가져다주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타인’의 다름을 만나면 자기 안으로 움츠러들어 서로를 갈라놓는 것만 보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어 당신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귀 기울여 봅시다.

○1 이어지는 기도의 세 순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분 사랑으로 우리 삶의 중심이신 그분께 돌아옵니다. 일치의 길은 하나님과 이루는 가장 내밀한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름은 다른 이들과의 일치와 화해를 찾고자 하는 바람을 북돋워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이것은 중요한 열매 곧 우리 내면과 우리 서로 간의 분열과 세상의 분열을 치유하는 은총입니다.

+ 평화 안에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서는 저희를 사랑으로 보살피 주시는 포도밭 농부이시며, 저희를 부르시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 모든 이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른 이들의 다름을 너무도 두려워합니다. 자기 자신 안으로 움츠러들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은, 저희 사이에는 적대심이 자라납니다.

주님, 오시어 저희 마음을 다시 한번 당신께로 이끌어 주소서. 저희가 주님의 용서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한데 모여 당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찬미의 호칭 기도

◎ 주님께서는 저희를 불러 주시어 이 땅 한가운데에서 찬양하게 하셨나
이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 세상 한가운데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주님께 찬미 노래 부르나
이다.

○2 창조 안에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주님께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 주님께서는 저희를 불러 주시어 이 땅 한가운데에서 찬양하게 하셨나
이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 고통과 눈물 안에서 주님께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2 약속과 성취 안에서 주님께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 주님께서는 저희를 불러 주시어 이 땅 한가운데에서 찬양하게 하셨나
이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 분쟁과 오해가 있는 곳에서 주님께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2 만남과 화해가 있는 곳에서 주님께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 주님께서는 저희를 불러 주시어 이 땅 한가운데에서 찬양하게 하셨나
이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 다툼과 분열의 한가운데에서 주님께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2 삶과 죽음의 한가운데에서, 새 하늘 새 땅의 탄생 안에서 주님께 찬
미 노래 부르나이다.

◎ 주님께서는 저희를 불러 주시어 이 땅 한가운데에서 찬양하게 하셨나
이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제1 밤샘 기도 | 그리스도 안에 머무름: 개인의 내적 일치

시편: 103

독서: 요한복음 15:1-17

화답송: 사랑이 있는 곳에(Ubi caritas, 30쪽)

짧은 침묵: 약1분

중보 기도

○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찾아 주시고, 하나님 우정을 받아들여 그 우정 안에 머무르도록 초대하셨으니, 저희가 이 초대에 더욱 깊이 응답하여 완전한 삶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 저희 마음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나이다.(노래로 하려면 31쪽).

○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세상 한가운데에서 찬양하며 서로를 하나님 은총의 선물로 받아들이도록 부르셨으니, 모든 사람 위에 머무시는 당신 사랑의 눈길로 저희 마음이 열려, 저희가 서로를 자기 몸처럼 받아들이게 하소서.

◎ 저희 마음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불러 모으시어 예수님의 한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로 만드셨으니, 사랑의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 본당 모임이나 지역 교회 일치 모임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저희가 다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 저희 마음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 포도밭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부르시어 모든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하시니, 저희가 하나님 선하심으로 인도되어 가정과 일터에서 그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시고, 경쟁과 긴장을 떨치는 길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주소서.

◎ 저희 마음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행동: 침묵

○ 우리는 흔히 기도를 우리가 하는 자신만의 활동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내적 침묵으로 초대받습니다. 우리는 모든 소음과 생활의 관심사와 생각을 내려놓도록 초대받습니다. 이 침묵 안에서 하나님만이 활동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르며 그분 안에 쉬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침묵(약5분)

성가 “하나님의 빛”(31쪽)

제2 밤샘 기도 | 그리스도인들의 가시적 일치

시편: 85

독서: 고린도전서 1:10-13 ㄱ

화답송: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There is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32쪽)

짧은 침묵: 약1분

중보 기도

○ 성령님, 이 세상 모든 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세우셨으니, 저희에게 오시어 예수님께서 수난 전날 밤에 성부께 바치신 기도를 저희 마음에 들려주소서.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요 17:21).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평화의 임금이신 주 예수님,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시어, 교회 안에 의혹과 증오와 오해가 멈추게 하시고, 저희를 갈라놓는 장벽이 허물어지게 하소서.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모든 이의 위로자이신 성령님, 저희 마음을 용서와 화해에 열어 주시어, 저희가 바른길로 되돌아오게 하소서.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니, 저희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어 저희가 예기치 못했던 주님 은총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소서.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성령님, 복음에 충실하여 박해받는 모든 이를 버려두지 않으시니,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 조력자들을 지켜 주소서.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행동: 평화의 인사

○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치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평화를 주시며, 그 평화를 함께 나누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지역 상황에 따라, 모든 이는 주변 사람들과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눈다.

성가 “하나님의 빛”(31쪽)

제3 밤샘 기도 | 모든 민족과 모든 피조물의 일치

시편: 96

독서: 요한계시록 7:9-12

화답송: 만물 위에 계시는 주님(O you who are beyond all things) (32쪽)

짧은 침묵: 약1분

중보 기도

-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나이다. 저희에게 문화와 신앙 표현, 전통, 민족들을 풍성한 선물로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께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어, 저희가 인종, 계급, 성별, 종교에 바탕을 둔 불의와 증오에 맞서 싸우고, 저희와 같지 않은 이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버리게 하소서.

- ◎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노래로 하려면 33쪽)

-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과 하나임을 보여 주셨으니, 저희가 이 세상에서 이 일치의 선물을 활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어,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믿는 이가 서로 귀 기울이고 평화로이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 ◎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어 저희 인간의 모든 것을 온전히 공유하심으로써, 여러 다른 방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겪는 삶의 역경을 아시니, 자비의 영으로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 저희가 시간과 삶과 재화를 궁핍한 모든 이와 나누게 하소서.

◎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 성령님, 상처 입은 피조물의 부르짖음과 기후 변화로 고통받는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어, 저희가 새로운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창조세계의 일부로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소서.

◎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행동: 중심을 향하여 모여 ...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가자의 도로테우스의 글에서 영감을 얻어

○ 우리는 치유해 주시고 화해시켜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봉사자가 되라고 부름받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참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야 비로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서로 더 가까워집니다. 땅 위에 그려진 원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원이 세상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해진 사람들이 중앙에 놓인 초 주위에 원을 이루며 서 있다.

○ 원의 중앙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중앙으로 향하는 길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로 열망하며 원의 중앙을 향해 걸어갈 때 ...

초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중앙으로 몇 걸음 다가간다.

- 중앙에, 곧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사람들은 서로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더 가까워질수록 ...

초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함께 중앙으로 다가간다.

-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집니다.

초를 든 사람들이 중앙에 다다르면, 각자 자신의 초에 불을 붙인다. 그들이 중앙에 다 함께 서면, 모두 침묵 가운데에서 잠시 기도한다.

짧은 침묵 (약1분)

주님의 기도

+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바칩시다.

-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성가 “하나님의 빛”(31쪽)

성가를 부르는 동안, 초를 든 사람들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그들이 받은 촛불을 회중과 함께 나눈다.

- 영성과 연대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행동은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그분의 성령, 모든 불의와 억압에 대항하여 행동할 용기와 지혜의 영을 받습니다. 다 함께 낭독합시다:

- ◎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하고 일합시다.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이 일과 휴식에 생명을 불어넣는 숨결이 되게 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면의 침묵을 유지하여 그리스도 안에 머무릅시다.
참행복의 정신인 기쁨과 단순함과 자비로 충만해집시다.”

그랑상 공동체 자매들은 날마다 이 말을 함께 낭독한다.

강복

+ 하나 되게 하시어 세상이 믿게 하소서! 그분 사랑 안에 머무르고, 세상으로 나아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 희망의 하나님,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모든 평화로 저희를 채워 주시어, 성령의 힘으로 저희 안에 희망이 넘치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침 성가 (지역별 선곡)

추가 자료(악보)

1. 찬미의 호칭 기도: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어”(You who call us)

Litanie "Toi qui nous appelles"

T: Esaie 62,7 M: Grandchamp

Toi qui nous appelles à être lou-ange au mi-lieu de la terre : Gloi-re à Toi !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litaney. It features a single treble clef staf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flat (Bb) and a common time signature (C). The music consists of several chords and a melodic line. The lyrics are in French: "Toi qui nous appelles à être lou-ange au mi-lieu de la terre : Gloi-re à Toi !".

2. 제1 밤샘 기도: 요 15:1-17에 이어지는 화답송 “사랑이 있는 곳에”(Ubi caritas)

Ubi caritas Deus ibi est

$\text{♩} = 58$

U - bi ca - ri - tas et a - mor, u - bi ca - ri - tas De - us i - bi est.

♩ Where there is char-i-ty, self-less love, Where there is char-i-ty, God— is tru-ly there. / Ten, kur gai-les-tis ir mei-lé, ten, kur gai-les-tis, Die-vasten y-ra. /
いつくしみあ-いの あるところか-みとむに

Music: J. Gelineau
© Ateliers et Presses de Taizé, F-71250 Taizé-Communauté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the hymn 'Ubi caritas Deus ibi est'. It features two staves: a treble clef staff and a bass clef staff. The key signature is two sharps (F# and C#) and the time signature is 3/4. The tempo is marked as quarter note = 58. The lyrics are in Latin: 'U - bi ca - ri - tas et a - mor, u - bi ca - ri - tas De - us i - bi est.' Below the Latin lyrics, there are English and Korean translations. The music is composed by J. Gelineau and published by Ateliers et Presses de Taizé.

3. 제1 밤샘 기도: 중보기도 화답송 “저희 마음의 기쁨은”(The joy of our hearts)

La joie de notre coeur

M+T: Grandchamp

V+R : La joie de no - tre coeur est en Dieu.

4. 각 밤샘 기도 끝에: “하나님의 빛”(Light of God)

Lumière de Dieu

T+M : Grandchamp

1. Lu miè - re de Dieu, in - on - de la ter - re,
 2. *Komm, gött* - li - ches Licht, er - leuch - te die Er - de,
 3. Come light, light of God, give light to cre - a - tion,
 4. *O god* - de - lijk licht kom on - der ons wo - nen,
 5. *Ó luz* do Senh - or que vens so - bre a ter - ra
 6. *Kom, Gud,* med ditt ljus, och ge - nom - lys värld - den,
 7. *Za - plav* ce - lou zem, svě - tlo Bo - ží tvá - ře,
 8. *Mwa - nga* - za wa Mungu, u - ja - za un - do - go,

1. vi - si - te nos cœurs et de - meure a - vec nous.
 2. er - füll' un - sre Her - zen, nimm Woh - nung in uns.
 3. en - light - en our hearts and re - main with your world.
 4. door - dring de - ze aar - de, daal neer in ons hart.
 5. in - on - da meu ser, per - ma - ne - ce em nós.
 6. och fyll vå - ra hjär - tan, med när - va - ron din.
 7. vej - di do srd - cí a zú - stá - vej u nás.
 8. tembe - le - a mioyo yetu, na u - ka - e na - si.

5. 제2 밤샘 기도: 고전 1:10-13에 이어지는 화답송 “주님도 한 분”(There is one Lord)

T : Eph. 4
M : J. Berthier

There is one Lord one faith, one bap - ti - sm ;
there is one God who is Fa - ther of all.

*Un seul Seigneur, une seule foi, un seul baptême,
un seul Dieu qui est Père de tous.*

6. 제3 밤샘 기도: 계 7:9-12에 이어지는 화답송 “만물 위에 계시는 주님”(O you who are beyond all things)

♩ - 66 Ô toi l'au-delà de tout

O toi, l'au-de-là de tout, quel es-pirit peut te sai-sir? Tous les
ê-tres te cé-lè-brent, le dé-sir de tous a-spi-re vers toi. O

(You who are beyond all things, what mind can grasp you? All that lives celebrates you; the desire of all reaches out towards you. / Oh tú, el más allá de todo, ¿qué espíritu puede comprenderte? Todos los seres te celebran, el deseo de todos aspira a ti. / Tu che sei oltre ogni cosa, chi potrà mai afferrarti? Ogni creatura ti onora; verso te i desiderii di tutti. / O du, der alles überragt, wie kann unser Verstand dich schauen? Jedes Wesen jubelt dir zu; allen gemeinsam ist die Sehnsucht nach dir. / Tyś jest ponad wszystko, jakież duch Cię ogarnie? Wszystkie stworzenia wystawiają Ciebie, wszyscy Ciebie pragną. S. Grégoire de Nazianze)

Music: Taizé

© Ateliers et Presses de Taizé, Le Bourg, 71250 TAIZE, FRANCE

7. 제3 밤샘 기도: 중보기도 화답송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God of peace, God of love)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response song. It is written on a single staff in G major (one sharp) and 4/4 time. The melody consists of several measures.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notes: "Dieu de paix, Dieu d'amour, en toi notre³es pér an - ce." The word "notre" is marked with a triplet '3' above it, and "es" has a '3' below it, indicating a triplet of notes. The piece ends with a double bar line.

Dieu de paix, Dieu d'amour, en toi notre³es pér an - ce.

8일간의 묵상과 기도

제1일

하나님의 부르심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요 15:16ㄱ)

- 창 12,1-4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다”
- 요 1,35-51 “첫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다”

묵상

우리 여정의 출발은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 피조물과 창조주의 만남, 시간과 영원의 만남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숙이 마련해 주신 자리로 가라고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며,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에 맞갖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한 처음에 우리에게 바라신 그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우리 이웃, 세상을 위한 하나의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눈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서에 나

온 대로,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한 방식으로 들려옵니다. 하나님 사랑의 손길에 이끌려 우리는 출발합니다. 이 만남으로 우리는 변모의 여정, 언제나 새롭게 시작되는 사랑의 관계로 나아갑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새에 ‘예’라는 응답이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에 이미 새겨져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겠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 침묵 가운데에 머무를 때 여러분은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를 따라라, 내가 너에게 마음의 안식처를 주리라.’”

‘떼제 자료집’(The Sources of Taizé), 2000년, 52쪽

기도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님께서서는 저희를 찾으시고
저희에게 당신의 우정을 주시며
저희를 더욱 완전한 생명으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니,
저희에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확신을 심어 주시어,
저희가 변화되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자애를 증언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일

내적 성숙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요 15:4-7)

- 에페 3,14-21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사시게 하시며”
- 루카 2,41-52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묵상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분과 함께 지내고 그분 안에 머물고픈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열매가 무르익는 시기입니다.

우리처럼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유대교 믿음을 실천하며 소박한 삶을 사셨습니다. 나자렛에서의 알려지지 않은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삶 안에 성부께서 현존하시며 예수님을 길러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께서는 당신과 당신 아드님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관상하셨고, 모든 일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셨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께서는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의 신비를 깨닫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도 오랜 성숙기가 필요합니다. 전 생애에 걸쳐,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가늠해 나가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방법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머무시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다른 이들과 나누고 우리가 이해한 것을 실천할 때, 우리의 내적 자아는 더욱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존재 깊숙이에 내려오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에 …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 안에 면면히 스며드실 것이고,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와닿으시어 우리도 어느 날 깊은 자비를 체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떼제 자료집’(*The Sources of Taizé*), 2000년, 134쪽

기도

성령님,
저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현존을 받아들이고
사랑의 비결로 간직하게 하소서.
저희의 기도를 풍요롭게 해 주시고
저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빛을 밝혀 주시며
저희를 통하여 활동하시어
성령님의 은총의 열매가 점점 자랄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3일

한 몸을 이루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 15:12ㄴ)

- 골 3:12-17 “연민을 입으십시오”
- 요 13:1-15:34-35 “서로 사랑하여라”

묵상

예수님께서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려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함께 사는 삶의 어려움과 상호 용서와 봉사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이제 나와 아무 상관도 없게 된다”(요 13:8).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내밀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친절이 그에게 가닿아 그를 씻어 준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받아 초기 교회 신자들의 우애를 위하여 봉사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포도나무에 수액이 흐르듯 생명과 사랑이 우리 전체에 흘러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한 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함께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의 한계에 직면하곤 합니다. 이따금 우리는 공동체나 교회나 가정에서 우리와 가까운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 시작하며 연민을 입으라는 초대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우리는 장점이든 단점이든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를 환영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혀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랑의 친교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화해를 일구어내는 사람입니까? 나눔의 소중함을 통하여 힘을 얻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공동체의 형제수도자들이 여러분을 지지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함께 친교의 모범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떼제 자료집’(The Sources of Taizé), 2000년, 48-49쪽

기도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저희 자매형제들을 통하여
저희에게 사랑을 드러내 보여 주시니,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어
저희가 저희의 다름으로 서로를 환영하고
용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저희가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시어
저희 각자가 선물임을 깨우쳐 주소서.
저희가 모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4일

함께 기도하기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요 15:15)

- 롬 8:26-27 “성령께서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 눅 11:1-4 “주님, 저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묵상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를 갈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창 3:9) 하고 찾으셨듯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일치를 이루시면서도 당신 제자들과 또 당신께서 만나시는 모든 사람과 친교를 맺으시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곧 당신 아버지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이루는 사랑의 관계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풍요로운 유다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시편을 함께 노래하였습니다. 그 밖의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따로 물러가시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와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놀라움, 탄식, 간구, 감사, 또는 단순한 침묵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따금 기도하고픈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픈 마음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체 안에서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성가, 말씀, 침묵을 통

하여 친교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전통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분열을 초월하시는 그 한 분에게서 비롯되는 친교의 유대로 하나 됨을 느끼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공동 기도를 바칠 때마다, 우리도 모르는 새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샘솟습니다. 공동 기도를 바친다고 우리가 개인 기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 기도와 개인 기도는 서로를 지탱해 줍니다. 날마다 시간을 내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친밀함을 새롭게 다져 나갑시다.”

‘프랑스어와 영어 떼제 규칙서’(*The Rule of Taizé in French and English*)
그리스도교 지식 촉진회(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 영국, 19&21쪽

기도

주 예수님,
예수님의 지상 삶 전체가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기도였으니,
성령을 통하여 주님 사랑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법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어
전 세계 믿는 이들이 기도와 찬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5일

말씀으로 변화되기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요 15:3)

- 신 30:11-20 “하나님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 마 5:1-12 “너희는 행복하다!”

묵상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이는 축복이고 행복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점점 약해지고 있는 부분을 인내로 바꾸어 주십니다. 포도밭 농부가 포도나무를 가지치기하듯, 하나님께서는 참 생명의 성장을 막는 것을 없애 주십니다.

정기적으로 혼자 또는 공동체 안에서 성경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참행복을 기도합니다. 참행복은 이루지 못한 것 안에 숨어 있는 행복, 고통 너머에 있는 행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 줍니다.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어 더 이상 참지 않고 눈물 흘리며 위로받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자기 내면에 감추어진 샘을 발견할 때, 그들 안에는 정의에 대한 굶주림이 그리고 다른 이들과 함께 평화의 세상을 위하여 노력하려는 목마름이 커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생명을 옹호해야 할 우리의 사명을 되살리라고 계속 부름받고 있습니다. 세상 끝 날 성취될 그 행복을 우리가 이미 지금 여기에서 맛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하고 일하십시오.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이 일과 휴식에 생명을 불어넣는 숨결이 되게 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면의 침묵을 유지하여 그리스도 안에 머무릅시다.
참행복의 정신인 기쁨과 단순함과 자비로 충만해집시다.”

그랑상 공동체 자매들은 날마다 이 말을 함께 낭독한다.

기도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담아 선물로 주시니 복되시나이다.
성경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주시니 복되시나이다.
저희가 생명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를 이끄시어,
하나님께서 그토록 저희와 함께 나누고자 바라신 그 행복을
저희가 맛볼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6일

다른 이들을 환대하기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요 15:16ㄴ)

- 창 18:1-5 “아브라함은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천사들을 맞이한다.”
- 막 6:30-44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묵상

그리스도께서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이 자라나 열매 맺게 됩니다. 다른 이를 환대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나누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지상 삶 내내 당신께서 만난 이들을 환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 말에 귀 기울이셨고, 그들이 고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당신께 손을 대게 해 주셨습니다.

빵을 많이 한 복음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굶주린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온전한 인간은 양분을 섭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당신께서만이 굶주린 이를 빵으로, 목마른 이를 생명으로 진정 채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 제자들 없이, 그들이 당신께 드릴 수 있는 작은 것, 곧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없이는 그리 하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당신의 조건 없는 사랑에 협력하도록 이끄십니다. 때로는 친절한 눈길이나 열린 귀, 또는 함께 있어 줌과 같은 작은 몸짓만으로도 충분히 누군가 자신이 환영받고 있다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능력을 예수님께 봉헌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이를 놀라운 방식으로 활용하십니다.

그때 우리도 아브라함이 체험한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줌으로써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환영할 때 우리는 더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손님으로 맞이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프랑스어와 영어 떼제 규칙서’(*The rule of Taizée in French and English*), 2012년,
103쪽

“우리가 날마다 환영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빛나는 남녀의 얼굴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까요?”

‘떼제 자료집’(*The Sources of Taizé*), 2000년, 60쪽

기도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희는 저희 곁에 있는 자매형제를 온전히 환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저희가 얼마나 자주 그들의 고통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지 아시고,

언제나 저희보다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시어

늘 연민으로 그들을 받아들여 주시나이다.

저희의 말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의 행동으로 그들을 뒷받침해 주시며,

저희 모두에게 축복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7일

일치 안에서 성장하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요 15:5ㄱ)

- 고전 1:10-13, 3:21-23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 요 17:20-23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묵상

예수님께서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당신께 주신 이들의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그리하여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도 우리 사이에 흐르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수액을 함께 나눕시다.

모든 그리스도교 전통은 저마다 우리를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 이끌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루는 친교입니다. 더욱 충실히 이 친교를 이루며 살아갈수록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온 인류와 더욱더 하나 됩니다. 바울 사도는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일치를 위협하는 태도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를 해치면서까지 각자가 지닌 전통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다름은 서로를 풍요롭게 해 주기는커녕 분열을 초래합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고전 3:22-23).

그리스도의 뜻은 우리를 일치와 화해의 길로 이끕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당신의 이 기도에 결합시켜 줍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그리하여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요 17:21).

“이웃 사랑을 기꺼이 고백하지만 여전히 갈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분열의 수치를 결코 체념하며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
를 열렬히 추구하십시오.”

‘프랑스어와 영어 떼제 규칙서’(*The rule of Taizée in French and English*), 2012년, 13쪽

기도

성령님,
생명을 주는 불과 부드러운 숨결로 저희 안에 오시어 머무소서.
우리 안에 일치의 열정을 되살려 주시어
저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이어주는 그 유대를 인식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입은 모든 이가 하나 되어
그들의 힘이 되는 희망을 다 함께 증언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8일

모든 피조물과 화해하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요 15,11)

- 골 1:15-20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 막 4:30-32 “겨자씨와 같다”

묵상

골로새서에 나오는 그리스도 찬가는 우리가 온 우주를 아우르는 하나님 구원에 대한 찬미를 노래하도록 초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의 길이 열렸고 피조물도 생명과 평화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가 바로 가까이 있지만 아직은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은 실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자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부활하신 분의 영계서는 계속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선의의 모든 사람과 함께 끊임 없이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고 이 지구가 다시 한번 모든 피조물을 위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보장하는 일에 동참하라고 힘을 북돋워 주십니다.

피조물이 그 모든 충만함으로 계속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예수님 영의 활동에 우리도 동참합니다. 자연이 아파할 때, 인간이 억압받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계서는 결코 우리가 실의에 빠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당신의 치유 활동에 동참하도록 초대하십니다.

비록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가져다주시는 생명의 새로움은 많은 이를 위한 희망의 빛이고, 피조물 전체를 위한 화해의 샘이며, 높은 데에서 오는 기쁨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요 15:11).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새로움을 경축하고, 그대 안에, 우리 가운데에, 교회 안에, 세상 안에, 온 피조물 안에 살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랑샹 공동체의 서원 때의 두 번째 서약

기도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를 창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와 피조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에 감사드리오니
저희도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눈길에 희망을 담아
저희가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랑상 공동체와 수도 생활에 대한 교회 일치 체험⁵⁾

1930년대에, ‘모르주 부인회’(Dames de Morges)로 알려진 프랑스어권 스위스 개혁신교회의 한 여성 단체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중요성을 재발견하였다. 그들은 자주 홀로 외딴곳으로 가시어 기도하신 그리스도를 그들의 모범으로 삼았다. 이 여성 단체는 영성 피정을 주최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를 개방하였다. 그러다가 뇌샤텔 호수 근처의 작은 마을인 그랑상에서 정기적으로 이 피정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다음에 기도와 환영을 위한 상시 시설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훗날 마르그리트(Marguerite) 자매가 된 한 여인이 그랑상에 정착했고 곧이어 두 여인이 그녀와 합류하였다. 이 피정의 주창자인 즈느비에브 미슐리(Geneviève Micheli)가 기도 안에서 이 소박한 시작을 이끌며 이 첫 세 자매들의 여정을 독려했다. 그들의 요청으로, 즈느비에브 미슐리는 1944년에 이 공동체의 초대 원장이 되었다.

경험도 없고 기도서도 수도 규칙서도 없었으며 그 당시에는 개혁신교회들 안에 수도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에, 첫 자매들은 지도를 받기 위하여 다른 교파 수도원들을 찾아다녔다. 이처럼 그들은 마음을 열고 다른 그리스도교 전통들의 보화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과 매일 묵상에 기초한 생활 방식, 공동체 생활,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는 환대 방식 등 모든 것을 배워나가야 했다.

첫 자매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분열에 대하여 아파하였다. 특히 즈느비에브 원장은 교회 일치와 신학적 차원의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즈느비에브 원장이 이러한 활동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본 것은 자신이 핵심적이라 여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비추어 드리는 기도였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들 안에 있게

5) 이 본문은 2021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자료집을 작성한 그랑상 공동체의 단독 권한과 책임 아래 발표되는 것이다.

하여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요 17:21). 즈느비에브 원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일치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공동체의 교회 일치 소명은 선택이 아니라 은사였다. 곧, 처음부터 받은 그리고 가난에서 태어난 은총이었다.

이 은총은 결정적인 만남들을 통하여 굳건해지고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신생 공동체와 리옹의 가톨릭 사제인 폴 쿠튀리에 신부의 만남이었다. 폴 쿠튀리에 신부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한 기도 주간’과 교회 일치 운동의 선구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쿠튀리에 신부와 이 그랑상 공동체의 첫 자매들 사이에 깊은 유대가 형성되었고, 쿠튀리에 신부는 이 자매들의 영적 여정에 충실히 동행해 주었다. 이는 그들이 주고받은 서한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1940년 쿠튀리에 신부는 즈느비에브 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 보냈다.

“... 피정에 참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분열에 대한 생생한 아픔으로 열렬한 기도와 점진적인 정화를 통하여 일치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결심이 들게 하지 않는 영성 피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가 보기에, 일치의 문제는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한 사람의 내적 삶의 지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하기에 원장님께서 제가 얼마나 당신의 요청과 영성 피정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시게 합시다.”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만남은 훗날 떼제 공동체의 로제 수사가 된 로제 슈츠(Roger Schutz)와의 만남이었다. 로제 슈츠는 1940년 그랑상을 방문하였다. 그는 그 자매들이 일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어 자신도 일치를 계속 추구해 나갈 용기를 얻었고, 그다음부터 이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다. 수년간 쌓아온 이 친교의 유대는 그랑상 공동체가 떼제 규칙서를 채택하고 곧이어 그 규칙서의 출판을 떼제 사무국에 맡긴 1953년에 더욱 깊어졌다. 로제 수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일치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는 인간을 조화롭게 해 줍니다. 이는 생각에

활동이, 존재에 행동이 따르게 해 줍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과 우리 내면 가장 깊숙이에 있는 것,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일치하고자 -점진적으로- 노력하는 그만큼 이러한 균형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⁶⁾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폐제 공동체의 수사들과 예수의 작은 자매회 수녀들과 더불어 그랑샹의 자매들도 흔히 혜택받지 않은 지역들, 특히 알제리, 이스라엘, 레바논의 소공동체들 안에서 그리고 유럽 각국의 노동자 계층 사이에 머물면서 기도와 우정의 소박한 삶을 실천하도록 부름받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지역 사람들과 교회들과 쌓아 올린 깊은 유대 덕분에, 그들은 보편 교회 안에서 전례 예식(liturgical rites)의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다른 종교들과 만날 수 있었다.

그랑샹의 교회 일치 소명에 따라 그랑샹 공동체는 인류 가족 안에서 모든 피조물을 존중하며 그리스도인들의 화해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그랑샹 자매들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 소명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화해를 실현하기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이내 깨달았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스위스와 프랑스 출신의 첫 자매들 외에도 (그 시대 사건들에서 영향을 받은) 독일과 네덜란드 자매들이 그리고 뒤이어 인도네시아, 오스트리아, 콩고, 체코, 스웨덴, 라트비아 출신의 다른 교파 소속 자매들이 합류했다.

세례 받은 모든 이와 마찬가지로, 그랑샹 공동체의 자매들은 그들이 이미 이루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수준의 친교의 존재가 되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우리가 먼저 서로 다른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는가? 다름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엄청난 도전도 된다. 다양한 교파, 언어, 문화, 세대가 있는 공동체가 자기만의 작은 방식으로 다양성 안의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라는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다양성에는 개성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관계 맺는 서로 다른 방식들이 포함된다. 그러하다면, 날마다 용서하는 것 외에 어떻게 화해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활동

6) *Les écrits fondateurs, Dieu nous veut heureux*, 121면.

은, 하나님 자비를 믿으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그다음으로 우리가 이루는 관계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바로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에 모든 분열의 뿌리가 있고, 마음의 가장 깊은 상처들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평화가 찾아들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실 우리의 일치는 성령께서 우리의 동의로 우리 삶을 점진적으로 인내로이 변화시켜 주심으로써 맺어지는 열매이다.

전례 기도(liturgical prayer)는 그랑상 일과의 중추이다. 그랑상 공동체는 날마다 네 번 모여 전례 기도를 드린다. 다양한 기회에 드리는 전례 예배는 자매들이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내면화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랑상 공동체 경당의 중앙에 있는 삼위일체 성화상은 침묵 가운데에서 자매들을 환영한다. 이는 자매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루시는 사랑의 친교 안으로 들어가 이 사랑이 그들 안에서 자라게 하라고 초대한다. 또한 이 사랑이 그들 사이에 그리고 그들 공동체를 방문하는 이들을 향하여 흐르게 하라고 초대한다. 이로써 은총의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자매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는다고 즐겨 말하곤 한다.

이러한 환영 덕분에, 복음의 비폭력에 대하여 공동체의 감각을 일깨워 준 사람들과의 놀라운 만남이 가능했다. 그들 가운데 장 고스(Jean Goss)와 힐데가르트 고스(Hildegard Goss), 조셉 피로네(Joseph Pyronnet), 시몬느 파코(Simone Pacot)는 더 깊이 있는 복음화를 위한 '베짜타'(Bethesda) 모임을 시작한 이들이다. 이와 동시에, 유기농 정원을 조성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며 식습관과 여행과 물건 관리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자매들의 생태 인식이 매우 높아졌다. 따라서 그랑상 공동체 자매들은 환경을 위하여 헌신하는 다른 공동체들과 단체들, 운동들, 개인들과 유대를 형성하고 교류하고자 한다. 또한 특히 지역과 국가와 국제적 차원과 교회 일치 차원에서 종교 공동체들과 수도 공동체들과 연락망을 형성하고, 교회 일치와 종교간 대화, 화해와 정의와 평화와 피조물의 온전한 보호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자 노력한다.

자매들은 쇄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쇄신에도,

유럽의 많은 다른 공동체들과 마찬가지로 그랑상 공동체 자매들도 고령화로 생기가 떨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이 문제는 창의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첫 자매들이 다른 이들의 도움에 의존해야 했듯이, 오늘날의 자매들도 다른 이들을 환대하고자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다. 그랑상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자원 봉사 활동은 기도하고 일하는 그랑상 자매들의 삶에 함께하는 것이다. 이 자원 봉사 활동은 그 누구보다 먼저 젊은이들에게 열려 있지만 연령 제한이 없으며,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모든 대륙의 사람들, 다른 교파 그리스도인들, 다른 공동체들의 형제자매, 때로는 유대교와 이슬람을 비롯하여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 그리고 특정 종교를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도 열려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랑상 공동체는 모든 이를 위한 기도의 집, 환영과 대화와 만남의 장소가 되고자 한다.

다른 종교 공동체들의 가난은 새로운 교역의 기회가 되어 왔다. 따라서 자매들은 다른 수도자들과 함께, 그들을 향하고 있는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귀 기울이고 식별해야 한다. 기도의 자리이자 화해의 표징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은혜이다. 따라서 지난 6년 동안 그랑상 자매들 가운데 한 명이 다른 네 공동체 출신 자매들과 교회 일치 자매결연을 맺고 프랑스에서 살고 있다. 또한 수년 전부터 자매들은 이스라엘 생활 체험을 위하여 3개월 비자로 이스라엘 여행을 해 왔다. 한 자매는 예수의 작은 자매회의 자매결연에 동참하여 그들의 일상 삶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두 자매가 성 요셉 가르멜 수도회 공동체 생활을 체험하였다. 오늘날 일부 자매들은 비공식적인 형태로 떼제 공동체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경험들이 그랑상 공동체에 새로운 은총들을 선사해 준다.

세계교회협의회(WCC)의 활동은 그랑상 기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그랑상 공동체 자매들은 세계교회협의회가 제안한 교회 일치 기도 주기에 따른 지향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랑상 공동체 자매들은 밴쿠버, 하라레,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개최된 회의들을 비롯하여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여러 회의에 참석하는 은총을 누려 왔다. 수년 동안 그랑상 공동체 자매들은 기도와 환대와 우정의 소공동체인 보세 에큐메니칼 연구소(Bossey Ecumenical Institute)의 대학원 과정에 참석해 왔다.

수도 생활은 교회들의 화해로 나아가는 길에서 비록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수도 생활은 계속해서 봉헌되는 친교의 선물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한다. 성령께서는 이 친교의 선물을 수많은 모습과 은총으로 꽃피워 주신다. 이는 반죽 속의 누룩이 될 수 있고, 일치의 누룩도 될 수 있다. 이는 우리를 신앙의 신비의 심오함으로, 지속적인 회개와 변모의 여정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또한 이따금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는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앙드레 루프(André Louf)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갈라진 교회 안에서, 수도원은 본능적으로 성령의 ‘무인도’를 형성합니다. 수도원은 탁월한 교회 일치의 땅이어야 합니다. 이는 다른 데에서는 희망으로만 존재하는 친교를 예표할 수 있습니다. 정교회와 가톨릭 교회가 지금 여기에서 아직 갈라져 있는 한, 기본적으로 수도원은 어디에 있든지 정교회에도 가톨릭 교회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수도원은 이미 성령께서 오늘날 강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갈림 없는 교회의 표징입니다.”⁷⁾

그랑샹 공동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웹사이트 www.grandchamp.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7) Dom André Louf, lecture on 16 December 1979 in Notre-Dame Cathedral in Paris for the inauguration of the Saint Benedict Year.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주제 목록

1968-2021년

세계교회협의회 신앙직제위원회와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는 1968년부터 공식적으로 기도 주간 자료를 공동으로 준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68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엡 1:14)

1969년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갈 5:13)
(이탈리아 로마에서 준비모임)

1970년 “우리는 하나님의 협력자입니다”(고전 3:9)
(독일 니더알트아이흐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1971년 “성령의 친교”(고후 13:13)
(이탈리아 바리에서 준비모임)

1972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요한 13:34)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1973년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눅 11:1)
(스페인 몽세라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1974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합니다”(빌 2:1~13)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1975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모으는 하나님의 계획”(엡 1:3~10)
(오스트레일리아 단체가 초안 준비,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1976년 “우리도 그분처럼 될 것입니다”(요일 3:2) 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카리브 교회 회의가 초안 준비, 이탈리아 로마에서 준비모임)

- 1977년 “희망을 갖고 함께 인내하십시오”(롬 5:1~5)
(내전 중인 레바논에서 초안 준비,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 1978년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엡 2:13~22)
(영국 맨체스터에서 교회 일치 단체가 초안 준비)
- 1979년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벧전 4:7~11)
(아르헨티나에서 초안 준비,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 1980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마 6:10)
(구 동독의 베를린에서 교회 일치 단체가 초안 준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준비모임)
- 1981년 “하나이신 성령과 여러 은사, 하나인 몸”(고전 12:3~13)
(미국 그레이머어에 있는 속죄의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들이 초안 준비,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 1982년 “행복합니다, 당신의 집에 사는 이들!”(시 84[83]편)
(케냐에서 초안 준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준비모임)
- 1983년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생명”(요일 1:1~4)
(아일랜드 교회 일치 단체가 초안 준비, 스위스 셸리니[보세]에서 준비모임)
- 1984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가 되도록 부름 받았습시다”(고전 2:2; 골 1:20)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준비모임)
- 1985년 “하나님께서서는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엡 2:4~7)
(자메이카에서 초안 준비, 스위스 그랑샹에서 준비모임)
- 1986년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행 1:6~8)
(유고슬라비아[슬로베니아]에서 초안 준비, 유고슬라비아에서 준비모임)
- 1987년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6:4)
(영국에서 초안 준비, 프랑스 떼제에서 준비모임)
- 1988년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요일 4:18)
(이탈리아에서 초안 준비, 이탈리아 피네롤로에서 준비모임)
- 1989년 “공동체 건설, 그리스도 안에 한 몸”(롬 12:5~6)

(캐나다에서 초안 준비, 영국 웨일리 브리지에서 준비모임)

1990년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요 17 장)

(스페인에서 초안 준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준비모임)

1991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시 117[116]편; 롬 15:5~13)

(독일에서 초안 준비, 독일 풀다 지역의 로텐부르크에서 준비모임)

1992년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므로 가라”(마 28:16~20)

(벨기에에서 초안 준비, 벨기에 브뤼주에서 준비모임)

1993년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갈 5:22~23)

([현재 콩고 민주 공화국인] 구 자이르에서 초안 준비, 스위스 취리히 근교에서 준비 모임)

1994년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행 4:23~37)

(아일랜드에서 초안 준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준비모임)

1995년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함께 또 서로서로 이루는 친교”(요 15:1~17)

(신앙직제위원회에서 초안 준비, 영국 브리스틀에서 준비모임)

1996년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계 3:14~22)

(포르투갈에서 초안 준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준비모임)

1997년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빚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고후 5:20)

(북유럽 교회 일치 위원회에서 초안 준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준비모임)

1998년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롬 8:14~27)

(프랑스에서 초안 준비, 프랑스 파리에서 준비모임)

1999년 “하나님께서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계 21:1~7)

(말레이시아에서 초안 준비, 이탈리아 보세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2000년 “하나님께서서 찬미받으시기를 빚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엡 1:3~14)

(중동에서 초안 준비, 이탈리아 베르나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 2001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 14:1~6)
(루마니아에서 초안 준비, 루마니아 불칸에서 준비모임)
- 2002년 “정녕 주님께는 생명의 샘이 있나이다”(시 36[35]:6~10)
(유럽주교회의협의회와 유럽교회협의회에서 초안 준비, 독일 아우쿠스부르크 근교에서 준비모임)
- 2003년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고후 4:4~18)
(아르헨티나에서 초안 준비, 스페인 로스 루비오스에서 준비모임)
- 2004년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요 14:23~31; 14:27)
(시리아 알레포에서 초안 준비, 시칠리아 팔레르모에서 준비모임)
- 2005년 “교회의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고전 3:1~23)
(슬로바키아에서 초안 준비, 슬로바키아 피에스타니에서 준비모임)
- 2006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마 18:20)
(아일랜드에서 초안 준비, 아일랜드 킬대어 주 프러스페러스에서 준비모임)
- 2007년 “귀족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막 7:31~37)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초안 준비, 프랑스 파베르주에서 준비모임)
- 2008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살전 5:13~18)
(미국에서 초안 준비, 미국 개리슨 시 그레이모어에서 준비모임)
- 2009년 “네 손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겔 37:15~28)
(한국에서 초안 준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준비모임)
- 2010년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눅 24:48)
(스코틀랜드에서 초안 준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준비모임)
- 2011년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서 하나 되기”(행 2:42참조)
(예루살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초안 준비, 시리아 사이드나야의 크리스토포루스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 2012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고전 15:51~58참조)
(폴란드에서 초안 준비-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준비모임)

2021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 2013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미 6:6~8참조)
(인도에서 초안 준비-인도 방갈로르에서 준비모임)
- 2014년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고전 1:1~17참조)
(캐나다에서 초안 준비-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준비모임)
- 2015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요한 4,7)
(브라질에서 초안 준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준비 모임)
- 2016년 주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벧전 2:9)
(라트비아에서 초안 준비, 라트비아 리가에서 준비 모임)
- 2017년 화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고후 5:14~20 참조)
(독일에서 초안 준비,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준비 모임)
- 2018년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신 주님의 오른손 (출 15:6)
(카리브 지역에서 초안 준비, 바하마 나소에서 준비 모임)
- 2019년 너희는 정의, 오직 정의만 따라야 한다 (신 16:18-20)
(인도네시아에서 초안 준비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준비 모임)
- 2020년 그들은 우리에게 각별한 인정을 베풀었다 (행 28:2)
(몰타에서 초안 준비 - 몰타 라바트에서 준비 모임)
- 2021년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요 15:5~9)
(그랑상 공동체에서 초안 준비 - 스위스 아루즈에서 준비 모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역사에서 중요한 날들

- 1740년경스코틀랜드에서 북미 사람들과 연계하여 열린 성령 강림 운동. 이들의 신앙 부흥 운동 메
시지에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모든 교회와 함께 바치는 기도들이 포함됨.
- 1820년 제임스 홀테인 스튜어트 신부가 '성령 강림을 위한 그리스도인 총연맹의 제안' 출판
- 1840년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한 이나시우스 스펜서 신부가 '일치를 위한 합동 기도' 제안
- 1867년 제1차 램버스 성공회 주교회의가 그 결의안 전문(前文)에서 일치 기도 강조
- 1894년 레오 13세 교황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전후하여 일치 기도 주간 실천 장려
- 1908년 폴 왓슨 신부가 제안한 '교회 일치 기도 주간' 준수
- 1926년 신앙직제운동이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위한 제안'을 발표하기 시작
- 1935년 프랑스의 폴 쿠틀리에 신부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치'
를 위한 기도를 바탕으로 '세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주창
- 1958년 교회일치위원회(프랑스 리옹)와 세계교회협의회(세계교회협의회)의 신앙직제위원회가 협력하여 일치 기도 주
간 자료 준비 시작
- 1964년 예루살렘에서 바울 6세 교황과 아테나고라스 1세 총대주교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21)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바침.
- 1964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의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Unitatis Redintegratio)은
기도야말로 교회 일치 운동의 혼이라고 강조하며 일치 기도 주간의 준수를 장려
- 1966년 세계교회협의회(세계교회협의회) 신앙직제위원회와 그리스도인일치사무국(현재의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
진평의회)이 공식으로 일치 기도 주간 자료의 공동 준비 시작
- 1968년 신앙직제위원회와 그리스도인일치사무국이 공동으로 준비한 일치 기도 주간 자료를 최초로
공식 사용
- 1975년 지역 교회 일치 운동 단체가 준비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 일치 기도 주간 자료를 최초로 사
용
- 1988년 말레이시아 주요 그리스도교 단체들을 연결하는 말레이시아 그리스도교 연합의 창립 예식
에서 일치 기도 주간 자료 사용

2021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1994년 YMCA와 YWCA의 대표가 포함된 국제 모임이 1996년 자료 준비

2004년 세계교회협의회 신앙직제위원회와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가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자료를 같은 형식으로 공동으로 발표하고 출판하기로 합의

2008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100주년 기념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전신인 ‘교회 일치 기도 주간’이 1908년에 처음으로 거행되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2017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자료집 작성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아카데미(6기)

수강생 모집

- 일 시: 2021년 4월 중 개강,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총10강)
- 장 소: 미정(*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 강의 예정)
- 수강비: 10만원
- 대 상: 평신도 천주교인 25명, 개신교인 25명(선착순, 수도자목회자 가능)
- 2021년 2월 중 공지 예정: www.fno.or.kr

강사(*변경 가능성 있음)

송용민 신부	독일 본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손정명 수녀	로마 안토니아눔 신학대학,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안교성 목사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양현혜 목사	일본 도쿄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임민균 신부	로마 그레고리안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준양 신부	로마 그레고리안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태식 신부	독일 괴팅엔대학교, 성공회대학교 교수
임종훈 신부	서울대학교, 정교회출판사 편집장
조기연 목사	미국 드루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장동훈 신부	로마 그레고리안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장윤재 목사	미국 유니온신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찬석 목사	미국 드루대학교, 협성대학교 교수
조현철 신부	예수회 신부,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정태영 신부	로마 교황청립 안토니오 대학교, 작은형제회
정경일 박사	미국 유니온 신학대학교, 새길기독교사회문화원 원장
장영주 사관	감리교신학대학교,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교수

커리큘럼(*변경 가능성 있음)

강의	주제와 내용
1강	(개강)오리엔테이션, 그리스도교는 어떤 종교인가?
그리스도교 역사에 대한 이야기	
2강	그리스도교 전통의 형성과 전개 과정 I :정교회와 천주교회
3강	그리스도교 전통의 형성과 전개 과정 II :개신교회, 종합토론
4강	다양한 교회인가, 하나인 교회인가? :교회일치운동
그리스도교 교리에 대한 이야기	
5강	나는 어떻게 구원 받는가? :'구원'에 대한 상호 이해
6강	성경만으로, 성례만으로? :말씀과 성례(성사)에 대한 상호 이해
7강	“누가 교회인가?” :교회의 직무와 직제에 대한 상호 이해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모든 생명의 일치	
8강	오늘의 생태 위기 속의 그리스도인
9강	그리스도교 영성과 그리스도인의 삶
10강	(종강)종합토론, 수료식

2021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자료집
1월 18일~25일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03129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9 기독교회관 706호

전 화 · 02-743-4471

팩 스 · 02-744-6189

홈페이지 · www.fn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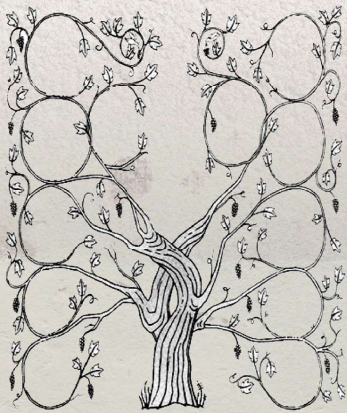
출판협조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원문:

Resources for The Week of Prayer for Christian Unity and throughout the Year 2021, *Abide in My Love and You Shall Bear Much Fruit* (cf. *Jn* 15:5-9), Jointly prepared and published by the Pontifical Council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 and the Commission on Faith and Order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https://www.oikoumene.org/resources/week-of-prayer-for-christian-unity>



I AM THE TRUE VINE + YE ARE THE BRANCHES



"나는 포도나무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좌측의 그림은 포도나무 중심에 그리스도가, 가지에는 신자들이 생명으로 얽혀 있는 많은 이콘의 기본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우측은 로마의 성 클레멘트 성당의 모자이크화 "생명의 나무"입니다.